

## 중전기산업의 중국 수출전망 및 경제 현황 ②

글/이우공 전기조합 품질인증원장

### 마. 중국의 서부 대개발 주요내용

중국의 지역구분 및 개념은 제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86~'90)에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동부지역은 요녕, 북경, 천진, 허북, 산둥,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둥, 광서, 해남 등 12개 성(省), 시, 자치구로 구성되었고, 중부지역은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9개 지역이며, 서부지역은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장, 서장, 운남, 귀주, 사천, 중경 등 10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60년대에는 냉전시대의 국가안전을 위해 주요 군사공업시설을 서부 내륙지역에 집중하였으나 지역경제발전이 한계를 노출하여 개혁개방 이후 '80~'90년대에는 투자중심이 연해지역 특히 4대 경제특구로 이동하였고, 서부지역에는 주로 에너지자원 및 원자재 개발 즉, 석탄개발, 황하상류와 운남지역의 수력발전시설 개발, 감숙 및 운남성의 비철금속기지 건설, 삼협댐건설 등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중·서부 내륙지방 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장강 연안지역의 도시들을 개방하는 한편 변경지역 및 내륙지역의 개발

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3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 2단계인 온포(溫飽)단계(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와 소강(小康)단계(여유있는 생활단계)가 각각 80년대와 90년대에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3단계인 현대화 단계를 2000년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서부지역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부지역은 그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나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중·서부지역의 막대한 시장과 노동력 및 광산자원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부개발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 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이며 서부개발을 통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생산지역 이면서 서도 공업이 발달하여 자체발전이 가능하지만 서부지역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서부개발은 주룽지 총리가 직접 책임자가 되며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제정부, 인민은행, 교통부, 농업부, 철도부 등 20여개 부처의 장

표 6 동부와 서부지역 경제력 비교

구 분	동 부	서 부	비 고
면 적	전체의 13%	56%	중부 31%
인 구	" 41%	24%	중부 35%
G D P	65%	25%	
년평균성장률('79 ~ '98)	12.8%	8.7%	
인프라투자비율('79 ~ '98)	60%	20%	
사회복지지선	45%	20%	
국유기업기술인원	51%	17%	
대 외 무역	'99년의 총수출의 91%를 동부지역에서 달성 (광둥 상해지역이 전체의 50%)		
의 자 도입	서부는 전체의 5.42%에 불과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개발을 3단계 국가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초기(2000~2005년)에는 개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주요 기구수립, 홍보 등을 추진하고, 2006년~2015년까지는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며, 2015년~2050년까지는 서부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제고 등 전면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서부개발의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말까지는 서부대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교육 및 인재유지정책의 중점연구와 인프라의 확충 등인대 이를 위하여 금년에 철도, 도로, 공항, 수리시설, 교육시설 등 10개의 신규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서부개발에 끌어들이고자 각종 세제, 재정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서부개발에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현지 대사관이나 무역관들은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을 살펴보면 중서부 지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국가의 기준을 거쳐 제정한 외자도입 산업과 프로젝트 사업목록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질적으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관련설비 도입 및 기술, 원자재,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설비 세수정책조

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중서부지역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투자기업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 비율의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다.

즉, 서부지역 개방영역 확대방안으로

첫째, 개혁개발종합시험구, 민족경제진흥구, 국제상무구, 여행구, 가공무역구, 경제합작시험구, 보세구 등을 설립하고,

둘째, 성(省)별 외국투자 비준권한을 현재의 3천만불이하에서 5천만불이하로 확대하며

셋째, 외국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넷째, 무역관리제도 개혁으로 수출입권한의 대폭확대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다섯째, 서부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연해지역~서부지역까지의)운송비 및 제 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중서부 지역에 설립된 국가가 장려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수우대정책이 만기된 후 3년동안 15%로 기업소득세를 감면 징세(세율 차별화)해 주는데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법 제정을 통해 차별세율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최초 10~20년간 서부지역에 대하여 전면적인 세수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세수 우대폭도 전국 평균수준 보다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연해특구 최초 발전시기보다 크게 할 방침이다.

표 7 서안 10대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西岸-南京철도의 西岸-合肥구간 건설	995Km에 280억불을 투자
重輕-懷化간 철도건설	640Km에 22억불 투자
서부간선도로 건설	국도와 간선도로 1,700Km건설
공항건설	西岸 咸陽국제공항, 成都 九流, 蘭州 中川국제공항 등
重慶고가철도 건설	13.5Km 14개역에 3억9천만불 투자
紫達木 천연가스공사	紫達木-서영-난주 953m(년간20억입방m 수송)
발전 및 홍수방지용 수리시설공사	四川의 자평포 프로젝트 발전설비 영하 회족자치구의 수리시설 및 발전시설
생태계건설 및 황무지 조림사업	13개성의 토지 녹화 및 인공조림사업
질염비료공사	청해성 염호지역 비료생산공장 건설
고등교육기초시설	서부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원

세계우대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서부지역 자원개발 기업은 자원세를 면세 혹은 일부만 징수(先徵後退)하여 국가가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둘째, 서부지역 노후 공업기지 등에 증치세, 소득세의 징수조건을 완화하며

셋째, 매 1개 도시는 2~3개 보세구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외자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동 지역에서도 외국투자기업의 대우를 향유하도록 하고, 연해지역의 외국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진출하여 다른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도급 경영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며, 중서부지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는 그 수도지역에서 이미 건설한 개발구중 한 개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기대효과는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동,서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부지역 자원(서부지역에는 각종 석유, 가스,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수자원은 전국의 82.3%가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자원도 풍부)을 이용한 사회, 경제의 분업으로 공동발전을 꾀하며 중국내 내수시장 확대를 구상력을 증대시키고 주민생활의 수준을 향상(도로, 철도, 통신망

건설 등에 따른 기자재 도입 등으로 도시화의 진전)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유망 분야는 농업분야(토마토, 백합뿌리, 과일, 화훼 단지)와 관광분야(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호텔업 등) 및 환경분야(생태환경보호 관련 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진출할 경우의 애로사항은 열악한 운송환경(연해에서 원부자재 운송시 열차 운행편수가 부족해 화물차량 운송에 의존해야 함. 그러나 도로운송이 철로 운송에 비해 비용이 훨씬 비싸고 운송기간도 무려 2주일 이상 소요)과 복잡한 행정절차(대부분의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은행유자를 받는데 8종류 이상의 각종 허가증이 필요하고 수속기간도 최소 1개월 소요되며 토지 사용권 취득기간이 1년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음), 고급관리자와 숙련된 노동력의 절대 부족, 경제특구에 비하여 인센티브가 적고 법규와 정책의 수시 변동 및 지방관료들의 불법 세금징수 사례가 빈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 바. 중국의 상거래 체크포인트

중국시장의 특징은 외자유치의 주도로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형태에서 구매자 위주의 시장형태로 급격한 변화를 가

져 왔으며, WTO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을 확대해 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한 산업발전 및 대외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참고로, 중국경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역에서 48.7%, 수출이 44.1%, 수입이 4.7%, 제조업 총생산의 25%, 고정자산 투자의 13%, 세수의 14.4%에 달함), '97년 하반기부터 긴축정책을 펼쳐 소비가 둔화되고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생산 과잉으로 공급자간에 경쟁이 심화되었고, WTO가입조건에 따라 정보통신, 자동차, 전자부품, 화공, 무역, 금융, 유통 등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간의 진출경쟁의 가속화로 시장점유 경쟁은 치열해 질 전망이고 중국내 내수시장의 공략을 위해 외국 대형 유통기업들의 시장선점 경쟁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 다음은 중국 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성을 소개 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실패하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현지대사관이나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북경사무소측은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기업인들의 대표적인 상거래 특성은 “말바꾸기”, “손해안보기”, “골탕먹이기”, “경쟁불이기”, “서로 떠밀기”, “관세로 막기”, “성급한 우리나라 기업을 이용하기”, “불공정한 계약” 등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꼼짝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박수훈 참사상무관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거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법규와 제도, 각종 인허가 절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의 규정과 특권, 상대 기업의 신용도, 거래 유망품목, 국영기업과 개인기

업의 성격 그리고 중국인의 접근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다가 번번히 실패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북경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국 기업인들의 말 바꾸기를 살펴보면 중국 바이어들은 마치 물건을 살 듯이 찾아와 상담을 시작해 놓고 자꾸 말을 바꾸며 사지 않고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급히 덤벼들어 낚시바늘에 꿰이던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측 무역회사가 먼저 한국 상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실수요자를 찾는데, 만일 실수요자가 없거나 안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신용장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손해 안보기는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 상품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동 상품의 중국시장내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해서 팔아도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계약을 무시하고 신용장(L/C)을 열지 않는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뿐아니라 나아가 사소한 하자로 고의적인 시장 클레임을 걸어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서 남경시 양유진출구공사는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농산물의 가격이 선적시점에서 갑자기 오르자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만일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선적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의도적인 클레임을 걸기도 한 사실이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박을 하지만 중국 무역상들은 불확실한 이익을 향해 절대 도박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하면 절대로 손해를 부

담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골탕 먹이기는 일부 중국 수입상들은 신용장을 열면서 일부러 수정(Amend) 할 수밖에 없는 신용장을 열거나 또는 선적 직전에 다급하게 신용장을 열어 상대방의 실수나 하자를 고의적으로 유도해내 클레임을 걸기도 하며, 품질하자보다 사소한 문구나 조항으로 고의적인 클레임 시비를 걸기 때문에 결국엔 사소한 문구 하나로 커다란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된다.

경쟁 불이기는 일부 중국의 수입상들은 한국 기업끼리 가격 깎기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동일 기업의 타지역 지점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도록 불을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싸움 불이기는 전략은 뻔히 알면서도 자주 당하며 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서 심지어는 출혈 수출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국 수입상이 한국 수출상에게 취소불능 신용장(At Sight L/C)을 열어줄 때는 Usance L/C보다 특혜를 준다는 자세로 가격을 마구 깎으려하여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제살깎기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로 막기는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수입상들은 면세쿼터를 이용해서 수입하고 있으며, 면세쿼터가 없을 경우 높은 관세를 다 내고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면세쿼터가 없는 수입상들은 면세쿼터를 가진 회사들로부터 면세수입 허가증을 사서 수입을 하고 있다. 또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 및 수출하는 임가공 업체들도 수출용 원·부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가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떠맡기는 한국의 수출상은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지만 중국의 수입상은 실수요자, 수입대리상, 계약자, L/C 개설자, 돈가진 물주, 면세쿼터 보유자 등이 제각기 틀려 만일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각기 찾아 다니며 설득하고 구슬러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 때문에 분규가 해결되기 어렵고 중재나 법원을 통해 승소를 하여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중국 수출입 기업들의 신용이 어느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보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직 신용거래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급한 우리나라 기업의 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장사의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클레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법률적인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또 중국의 법률이나 규정이 일방적으로 외국측에 불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 클레임을 당하기도 하며, 중국측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아주 빠르게 요구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 되면 질질 끌며 늘어질 때까지 늘어지다 결국은 주지 않고 흐지부지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불공정한 계약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중 간에는 이미 양측 정부기관간에 체결된 수출입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것을 잘알지 못하고 또 중국 무역회사들은 일방적으로 중국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기네 계약서만을 고집할 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측 계약서에는 분규발생시 중재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중재를 무

조건 중국에서만 증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한국기업에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음에도 문제는 아쉬운 한국기업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공평한 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또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조건이 악화되었고 무역금융을 받지 못해 장기거래를 놓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사. 상사분쟁 예방 및 유의사항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데다 아직은 미개척 시장으로 인식되어 한국의 많은 사업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간주하여 많이 진출하였으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국가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확보 및 전문가를 활용하고 상대방을 무척대고 믿거나 무시하지 말며, 약점을 보이지 말고 철저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포기하지 말며 현지 법과 관습을 따르도록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북경주재 무역관은 당부하고 있다.

사전준비는 최초 접촉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무역분쟁의 경우 대부분이 수출대금 회수불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물품인수와 대금지불간의 연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국어와 영문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된 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에 중국어를 보는 것이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최후의 보루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변호

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표준계약서양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확보는 상대방의 신용,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소개하는 측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어서는 안되며 소개자의 말을 토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정보 확보방법은 중국의 전문신용평가기관, 한국대사관 및 각종 정부투자기관, 한국 및 중국의 동종업종 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한 경험자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활용은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경험자, 변호사, 한국의 중국관련 각종 기관 등 주변에 있는 각종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통역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 통역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통역이 통역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중국 말을 배워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엿보일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국사람은 대충대충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될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하오하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되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하고 따져야 하며,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매우 유리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되 값아 주려는 경향이 있다. 중국 당국과 접촉하다보면 오히려 중국측이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여 중국법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우리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적인 효과로서 중국측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되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며, 특히, 중국어로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국측과의 접촉, 회사경영 등 모든 것을 조선측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배신을 당하여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 중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중국인으로부터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관계가 좋다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너무 믿고 맡겨서는 안된다.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어야 한다. 일이 잘 될 때에는 증거가 필요없으나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증거이며, 증거가 없으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없이 말로만 대항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중국과 같은 외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에 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미리 증거를 꼭 수집해 두어야 한다. 중국인들은 개인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증거(특히 물적증거)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사업할 경우에 현지인이 외국인에 대한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을 끌어 외국인을 지치게 한 다음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양보를 이끌어내어 의외로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절대로 약점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기업이 약점을 보이게 되면 상대는 우리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기를 쳐도 별다른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특히 조선측과의 관계에서 사업상의 비밀사항이나 뭇뭇치 못한 사항 등이 알려지면 해고를 당하게 되거나 상호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거주 한국인에 대해 갖는 생각은 다른 선진국가 사람들에 비하여 다소 부정적이다. 실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관련 분쟁 및 범죄사건 중 한국인 관여율이 동남아 후진국을 제외한 외국인 특히 서양이나 일본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며, 중국에 가 있는 이상 중국의 법과 제도와 관습을 배우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 관례상 신용장거래는 수출입계약과 독립되어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서류상 거래라고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수입자들은 화물을 인출한 후 상품의 하자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인수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작은 흠집이라도 트집을 잡아 인수를 거절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특히 Usance)개설시 중국 은행들은 수입자로부터 100% 예치금을 받지 않고 대개 30% 정도의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자가 전액 갚지 않으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선하증권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자 앞으로 송부할 경우, 수입자는 동 선하증권을 가지고 화물을 인출한 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서류상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수입자는 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라 하더라도 선하증권을 수입자에게 미리 송부해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출품목이 쿼타관리품목일 경우 수입자가 쿼타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5대국유 상업은행(中國, 工商, 建設, 農業, 交通銀行)의 불량대출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의 성업공사에 상당하는 금융자산영리공사(金融資産營利公司) 등을 설립한 것은 은행들의 불량대출금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정부당국이 전국의 240개가 넘는 신탁투자공사 가운데 200개를 파산처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수출기업으로서의 문제소지가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중국의 5대 국유상업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장 위주로 수출거래를 행하는 한편 지방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지방은행에서 발행된 신용장의 수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홍콩을 경유 다국적 대형은행의 지불이행 추가확약을 받아 최대한 대금지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때 확인은행이 홍콩에 있는 은행이라 하더라도 중국은행 홍콩지점 계열은행인지 외국계 중소은행 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중국은행계열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 중국의 전력산업 현황

중국은 '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경제성장의 증추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발전시켜 왔다. 에너지산업 부분중 전력산업은 중국의 최대 관심사업으로서 중국의 발전능력은

'99말 현재 2억9,876만8천kW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용량 4,698만kW의 약 6.3배에 이르며 세계 제2위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국가이며, '99년도 발전량은 12,331억kWh로 우리나라 발전량2,393억kWh의 5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발전량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중국의 국토가 한반도의 43배, 인구는 26배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중국의 공업이 우리나라 공업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년간 발전설비의 증가율은 연평균 9.3%를 보이고 있으며, 발전량은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력산업 개발목표는 크게 6가지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발전설비 확장과 전기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술혁신과 발전소 개보수로 발전효율을 향상시키며,

둘째, 정부규제와 사업관리의 기능을 분리하여 전국적인 계통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셋째, 수력발전소 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부족이 두드러진 연해(沿海)의 성(省)에서 개발을 추진하며

넷째, 석탄산지의 발전소 개발을 장려하여 석탄이 풍부한 서부지역에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동부지역으로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석탄 청정화 및 탈황 설비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며

다섯째, 신규 발전소 설비용량은 300MW이상으로 하여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양하고, 풍력, 태양력, 지열 및 해력(海力)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여섯째, 외국인의 중국내 전력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주요 관련기관 및 기능을 보면 국무원 산하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



제무역위원회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의 국가전력공사는 투자 및 경영의 주체가 되어 중국전체 발전설비의 약 60%를 점유하여 지역간의 송전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전력망을 통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전력공사의 하부기관으로는 화북, 화동, 화중 및 서북 등 4개의 전력집단공사와 산동성, 요녕성 등 다수의 전력공사와 송.배전 전담의 전업국 등이 있다.

중국의 전력산업 개혁방안은 4단계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송배전회사를 발전회사와 분리하여 가격경쟁에 의해 전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그 다음단계로 배전회사를 또 분리하여 상호 경쟁을 시키도록 하는 방향이다. 또 농어촌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제도와 비슷한 “농어촌 전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력공사의 개혁과 발전의 성패는 중국 전력공업의 발전과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산업경제 개혁의 모델이 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4단계의 전력산업 개혁방안을 보면

제1단계('97. 1~'98. 3)사업은 전력공업부를

폐지하고 국가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의 기능과 기업의 기능을 분리하고 전력공업의 전담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제2단계('98. 4~2000)사업은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성(省)단위 전력공사를 주체화 하며, 중점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과제로는 “국가전력공사 내부기구 및 조직개편”, “국가전력공사 산하 집단전력공사 활성화”, “성(省)단위 전력공사의 실질적인 전력시장의 주도화”, “발전소와 송전망의 분리”, “농어촌 전력관리체계 개혁” 등이다. “국가전력공사 산하 집단전력공사 활성화”는 국가전력공사가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하여 집단전력공사의 경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3단계(2001~2010)사업은 발전소와 송전망의 분리를 통하여 전국의 송전망을 하나로 연결하고, 발전시장을 독립시키며, 국가전력공사, 집단전력공사 및 성(省) 전력공사는 송전망 경영을 위주로 제편하는 것이다.

제4단계(2011~)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체제 분리를 통하여 전력시장을 완전히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생산·공급하고자 한다. 2011

